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9회〉

맨살로 거꾸로 매달린 채 가죽채의 채찍을 맞고 또 맞으심

2절: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1) 주일예배 인도하다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
2) 전쟁 포로가 되어 모진 고문을 받음
3) 북으로 북으로
4) 필사의 탈출
5) 신양리 형무소의 독방생활
6) 총살당하다

4) 필사의 탈출

전쟁이라는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포로로 끌려가는 길목마다 죽은 시체가 즐비하게 늘려져 있는데, 그 모습은 너무도 참혹하였습니다. 아기를 업은 어미의 죽음은 북으로 끌려가는 포로들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미는 죽었는데 아기는 엄마를 부르며 눈이 붓고 목이 쉰 상태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의 기관총에 맞아 죽은 군인들의 시체, 인민군들이 무차별 학살한 양민들의 시체, 그 죽음들은 형형색색으로 일곱째 천사의 마음에 부딪쳐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란 하루 이틀만 잠을 못 자게 해도 피곤하여 비틀거리는 법인데, 인민군들은 원산까지 가는 한 달 반 동안 잠을 한 숨도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너무너무 졸려 견딜 수가 없어 철사줄에 매여 얕은 잠을 자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졸면서 걷다가 걸음을 비틀거리든지 하면 따발총으로 쏘아 죽여 연결된 쇠줄에서 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나이 스무 살에 참으로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으며, 인간의 탈을 쓰고 그 이하가 없을 정도로 밑바닥 중의 밑바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원산에 도착하니, 인민군들은 일을 부려먹기 위하여 주먹밥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살 만했으나, 틀림없이 종래에는 죽일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므로 탈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끌려간 분들이 대부분 정부의 요직에 계셨던 분과 사회 저명인사로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들이지만, 일곱째 천사는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 신분 또한 학생이었습니다.

끌려간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산주의 빨갱이 놈들이 참으로 지독하구나. 너 같은 학생이 무엇을 안다고 또 무엇을 하였다고 이토록 모질게 고통을 주어 고생을 시키다 마지막에는 죽여 없앤단 말인가? 우리들은 그래도 반공을 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제 자라나는 젊은 학생까지 무참히 죽이는 공산주의는 참으로 비인도적이요, 악질이구나." 하며 혀를 차며 탄식하였습니다.

반공 청년단장의 조언에 힘입어 탈출을 결행하다

무더위는 땀을 줄줄 흐리게 하고 검은 구름은 온 천지를 짓누르는데 당장이라도 소나기가 내려 퍼부을 것만 같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창고 앞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하고 대답하니까, 반공 청년단장을 지냈던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계의 눈빛을 보내더니 낮은 목소리로 "우리들이야 살만큼 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학생이야 장래가 구만리 같지 않겠어? 그런데 여기 있다가는 인민군이 죽이고 말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탈출을 시도해 봐.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탈출하게나."하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네,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탈출을 고려하던 참인데, 때마침 반공 청년단장의 조언은 탈출을 당장 결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인민군 경비병이 호각을 불면서 집합을 시켜서 모두 창고 앞으로 집합하였습니다. 인민군들은 포로들에게 주먹밥 한 덩이를 주고서는 전쟁물자 옮기는 일을 시켰습니다. 밀가루 포대 같은 것을 하나씩 어깨에 메어주며 고개 하나 넘어 저쪽으로 나르는 작업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한 포대도 힘에 겨워 끙끙대며 고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탈출을 결심하고 한 번 밀가루 포대를 메고 중간 고개를 지나 저쪽까지 운반해 보

가죽채로 채찍질을 당하는 일곱째 천사

니, 그곳에 보초 하나가 고갯마루에 서서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비가 허술한 편이었습니다. 놈들은 감히 포로들이 탈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보초 하나만 처치하면 탈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대를 메고 고개에 올라와서 그 인민군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마치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리는 시늉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휴, 힘들어" 하면서 힘에 부쳐 포대를 떨어뜨리는 척하였습니다. 포대를 놓는 동시에 그 보초를 발길질로 힘껏 내질렀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발길질에 차인 보초의 아시보총이 보초의 이마를 치자 그 보초는 뒤로 넘어지면서 입에 거품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곱째 천사는 어림잡아 남쪽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있는힘을 다하여 달음박질쳤습니다.

남쪽으로 도망간다는 것이 북쪽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붙잡히다

우거진 숲속을 헤치며 남쪽을 향해서 한 발이라도 멀리멀리 도망가야 산다는 생각에 훨훨 나르다시피 작은 소나무는 뛰어넘으며 계속 뛰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온통 가리고 있으니 동서남북의 방향은 알 수 없고 남쪽 방향이려니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해가 지자 온 천지는 캄캄한 밤으로 변하여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들짐승들이 울부짖고 길도 알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 남쪽을 향해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달려간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북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군에 입대하지 않았던 때라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점심 저녁도 굶고 계속 달려온 일곱째 천사는 몹시 시장함을 느꼈고 목이 타서 도랑물에 엎드려 물로 배를 채우고 다시 뛰었습니다. 그런데 민가의 불빛이 유혹하였습니다. 며칠간 무작정 도망을 쳤더니, 무척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달릴 수 있지 않는가. 저기에 있는 집에 가서 밥을 훔쳐 먹고 가야지'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동네에 접근하였습니다. 동네에 인적이 없으므로 가만히 민가 부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솥을 열어 보았지만 밥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찬장을 뒤져 보았지만 아무 것도 없고 고구마 삶은 것이 있기에 막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손들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들고 뒤를 돌아보니, 붉은 완장의 내무서원(남한에선 경찰관에 해당함)들이 총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마는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내무서(남한의 파출소에 해당함)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함경남도 고원군 탄광역전이었습니다. 원산에서 포로 한 명이 인민군을 해치고 탈출하였다는 긴급연락을 받은 원산 근처 일백사오십 리는 완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였는데, 일곱째 천사는 그것도 모른 채 선불리 행동하다가 그만 잡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다

일곱째 천사를 잡아서 밤새도록 잔인하게 고문을 가하는데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일곱째 천사에게 재미로 고통을 가하였으며 사람의 생명을 놓고 장난 짓을 하며 희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 달 동안을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몸을 발가벗겨서 거꾸로 매달고는 가죽채로 채찍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질하는 사람이 힘이 들면 교대로 돌아가면서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일곱째 천사의 코에 고춧가루 탄 물을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를 이길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혹독한 매질에 일곱째 천사는 고통을 면하고자 "북한이 좋아서 북쪽으로 왔다."고 하니, 인민군들이 "이 놈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보초병을 때려눕히고 도망친 놈이지." 하기에, 일곱째 천사는 "그 보초가 죽었는가?"라고 되묻는 것으로 스스로 도망친 당사자임을 실토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 보초가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인을 범하지 않게 되어서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인민군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그 후로 고문의 강도를 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문을 한 다음 양손을 머리 뒤로 하여 묶어 놓고는 평양 신양리 형무소로 압송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한 달 넘게 밥을 굶어 빈사상태의 몸에 죽을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그 죽음의 경지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은 스무 살 나이에 곡괭이 자루의 매질과 매서운 채찍질을 맞아야 했고 한 달 반 동안 금식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곱째 천사를 만민의 주, 만유의 주로 세우기로 예정하신 섭리에 따른 연단과정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를 점령하여 하나의 몸, 하나의 영이 되어, 삼위일체로 원시반본하여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어 잃어버렸던 에덴동산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박한수

축 메시아절

한해를 마무리하는 멋진 멘트로 사회를 본 서보목 승사

진해제단 박상구 승사의 섹소폰 연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대구제단 라준경 승사의 테마가 있는 노래

새로 작곡한 '감람나무 우리엄마' 연주로 구세주의 인내와 승리를 잘 표현한 김성우 지휘자와 무궁화관현악단

중우한 화음으로 부족한 연습량을 메우고 성도들의 환호를 끌어낸 떡고물중창단이 노래하고 있다

섬세하고 웅장한 합창을 들려준 무궁화합창단원